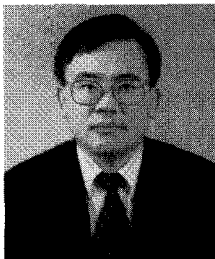


# 산업 사회로의 진입

이 글은 국제 환경문제의 권위자인 미국 하버드대학교 Michael Reich 교수가 저술한 "Island of Dream"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박 석 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메**이지 유신으로 알려져 있는 권력의 이동은 내번째 문화 침략의 시작과 사회 기초 조직의 재구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새 정부의 1차적 목표는 명백했다. 군사력이 우위에 있는 서구 열강에 대하여 일본의 문화적 독립성과 국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유연한 실리주의와 폭넓은 안목을 갖춘 일본의 새 지도자들은 쇄국적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근대 국가 건설을 향한 활기찬 개혁정책을 펴나갔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들은 서구의 사회적, 기술적 발전상 중에서 일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기 위하여 조사관들을 파견했다. 오래지 않아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프러시아가 가장 본받을 만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발전된 산업을 기반으로 강력한 중앙 정부를 가진 프러시아는 일본이 모델로 삼기에 가장 적절한 나라로 뽑혔다. 프러시아를 본따서 국민 전체에 대한 초등교육과 병역 의무제도가 곧 마련되었다.

메이지 시대(1867-1912)가 시작되면서부터 '부국강병'을 달성하려는 국가 지도자들은 일본의 자연 및 인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기 시작했다.

외국의 침략을 피하는 데 급급한 일본에서 근대 산업화의 목적은 국민의 유복한 생활이 아니라 군사력 강화의 기초를 제공하고 근대 국가들의 대열에서 일본이 동등한 위치를 얻게 되는 것이었다. 일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쳐야만 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초기 봉건 시대 동안에 뿌리 박힌 사회적 복종의 가치들은 그 대상만 근대 일본과 메이지 국왕으로 바뀐 채 여전히 일본인들에게 남아 있었다.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떠받들어졌고, 불평은 신성한 가치를 더럽히는 행동이었다. 국가가 최우선이었고 부국강병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근대화를 위하여 하나로 뭉쳐졌다.

메이지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일본에는 이미 봉건시대에 만들어진 몇 개의 철 주조 공장이나 철-원석 제련소, 기계화된 방적소, 철, 석탄, 구리 광산, 조선 설비 등이 있었다. 봉건 시대부터 광산과 중공업 산업은 당연히 정부가 경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메이지 정부는 처음으로 산업체 대부분을 국영 기업으로 못박았다. 철도와 운송설비, 광산, 조

## 목 차

1. 초기 환경문제
2. 문화적 배경
3. 산업 사회로의 진입
4. 전후 환경정책
5. 산업구조
6. 인구문제
7. 지구환경과 일본의 역할

선, 무기 제조 등과 같은 근대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모든 필수 요소들을 국가가 소유했다. 그와 더불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기업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섬유 산업과 초기에 외국에서 수입해 오던 물자를 제조하는 경공업에도 정부가 직접 투자했다.

18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정부는 공기업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몇몇 전략 사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개인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들이 권력자의 친구나 친척에게 거의 맡겨지다시피 싼값에 팔렸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근대화 초기부터 정부와 기업체간에 끈끈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관계는 경제 지도자들이 정부 정책을 계속해서 지지하도록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와 대기업 사이에서는 정경유착이라고 불리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초기 대기업들은 서구의 초기 자본주의자들과는 달리 봉건세력에 대항하여 투쟁할 필요도 없이 사업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들은 과거에 봉건적 계급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세운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근대화를 열망하는 정부는 기업을 도와주는 법을 만들고, 계약을 체결하고, 차관과 국가 지원금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정부와 경제계의 새 지도자들은 외

국인의 득세에 대한 두려움과 산업 생산력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표에 의해 설정된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봉건적 지위를 잃은 많은 과거 사무라이들은 자연스럽게 메이지 시대의 새로운 사무라이 역할인 대기업가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사무라이 중 다수는 역시 봉건 시대 말기까지도 경제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상인 출신이거나 부유한 지주 출신이었다. 도쿠가와 시대에는 명목상 최하위 계급이었던 상인이 이제 최고가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무라이 계급의 무사도 정신에 큰 영향을 받은 최고의 가치는 이제 이익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변화였다. 무사도의 가치와 봉건시대의 정신으로 무장한 메이지 시대 정치 지도자들은 사무라이 전사의 배타적 특권이었던 권력과 명예를 사업가들에게 아낌없이 부여했다. 나라를 잘살게 만드는 것이 사업가의 책임이라는 논리로 사업가를 사회적 우상의 정점으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사회는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이지 정부가 초창기 산업을 국유하고 경영하는 동안에 고용주 고용자 관계의 패턴은 후기 봉건 시대의 그것과 비슷했다. 그 뿌리는 계급적인 혈통 관계에 깊이 박혀 있었고, 경영자-노동자 관계는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진 주인-하인, 장안-견습생 사이의 봉건적 관계와 매우 흡사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가 국영 기업 설비들을 사기업에게 팔아넘긴 후, 경영자-노동자 관계는 변화를 겪었다. 생산 규모가 단시간 안에 확대되면서 공장에서는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여, 농민이나 일반 노동자들이 여기에 투입되었다. 경영과 노동 간의 공감과 상호 연대의 고리는 차츰 약해져갔다. 생산성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에는 노동자의 힘보다도 오히려 도구나 설비가 더 중요하게 보였으므로 경영진들은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몸에 익혀 온 경영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189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본의 노동 조건은 거의 절망적 상태였다. 그 무렵 노동자들은 폭력 시위까지 일으켰으나 산발적이고 비조직적이어서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1900년대에 들면서 언론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반발하는 국민 감정을 결집시켰고, 정부는 실리적 목적을 위하여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동자를 천대함으로써 부국강병의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이 전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부는 다소 자극을 받았다. 계속되는 가혹한 노동력 착취

1920년에 동경과 오사카 시의 인구를 합하면 총 인구의 12%인 680만 명이었다. 이 지역의 탄탄한 재정과 공업적 기반, 중앙에 위치하고 좋은 항구를 끼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본 정부는 동경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연안 공업 벨트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했다. 이 정책은 20세기 후반에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환경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

가 인적 자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나아가 일본 산업화의 속도를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어린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앞으로 군인이 되어야 할 아이들을 낳을 몸이었다. 산업 전선에서의 힘든 노동이 모체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도 있었다.

대중적 비판에 떠밀려서,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는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숙련공들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업가들은 노동자들의 충성심과 순종을 확고하게 할 방법을 찾는 데 골몰했다. 그들은 곧 일본의 사회적 가치 체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냈다. 경영자들은 봉건적 가족 구조를 칭찬하는 의도적인 캠페인을 벌였고, 고용주-고용자 관계의 모델로 삼기 시작했다. 회사는 자비로운 아버지 역할의 경영진과 말 잘 듣는 아이 역할의 노동자로 구성된 거대한 가족으로 인식되었다. 이 새로운 체제는 고용자들에게도 잘 먹혀들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고용 안정과 재직 기간에 따른 임금의 상승을 보장했기 때문이었다. 시골에서 온 이주자들은 낯설고 삭막한 도시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친숙한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이 새로운 철학은 1차

대전 이후에 넓게 자리 잡았다.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집단성으로 인정되었고, 조화와 협동을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되었다. 개인적 자유와 독립적 행동은 전체 이익을 위해 기꺼이 포기해야만 했다.

오늘날까지 일본 경제 조직을 지배하는 가족 회사 개념은 이때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 구조는 봉건 시대의 지배 이념과 다를 바 없었다. 사무라이는 자비로운 사장으로, 소작농은 노동자로, 과거의 혈족은 경제적, 감정적으로 결속된 거대한 가족 구조로 바뀌어 충성을 요구하였다. 교토 대학의 우메사오 타다오 교수는 오늘날에 사장을 일컫는 '쥬야구'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뜻의 '토리시마리아쿠'라는 단어가 봉건 시대에 주요 행정관을 지칭했음을 지적하며 이 사실을 설명했다. 과거 봉건시대에 영주들을 서열화하던 방식과 유사하게 기업과 사장들도 세금이 부과되는 생산성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

메이지 혁명 이후에 크게 달라진 점 하나는 인구 증가에 관한 부분이었다. 왕실은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에게는 널리 자행되었던 낙태와 일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영아 살해를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인구의 증가를 돕는 데 한몫 했다. 또한 위생에 관한 개념이 널리 퍼지고 의학 기술이 발달한 데다 농업 생산력

의 증가로 식량난이 해결된 것도 인구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일본의 인구는 1890년에 3천 4백만 명에서 1900년에는 4천 4백만 명으로, 다시 1930년에는 6천 4백만 명으로 40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늘어난 인구는 국가 근대화 정책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배분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선 후 과중한 세금, 흉작, 불안정한 곡물 시세와 토지 임대료 상승 등에 못 이긴 소작농들은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1873년에는 총 인구의 16%만이 인구 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했으나 1913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23%로 늘었다.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공장 노동자의 수는 두 배로 늘어났고 그 후 10년 동안에 다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농촌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은 혼슈 섬의 도시 지역, 특히 동경과 오사카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이 지역은 과거에 도쿠가와 전제 정권의 직접적 통치하에 있었고,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공업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20년에 동경과 오사카 시의 인구를 합하면 총 인구의 12%인 680만 명이였다. 이 지역의 탄탄한 재정과 공업적 기반, 중앙에 위치하고 좋은 항구를 끼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본 정부는 동경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연안 공

업 벨트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했다. 이 정책은 20세기 후반에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환경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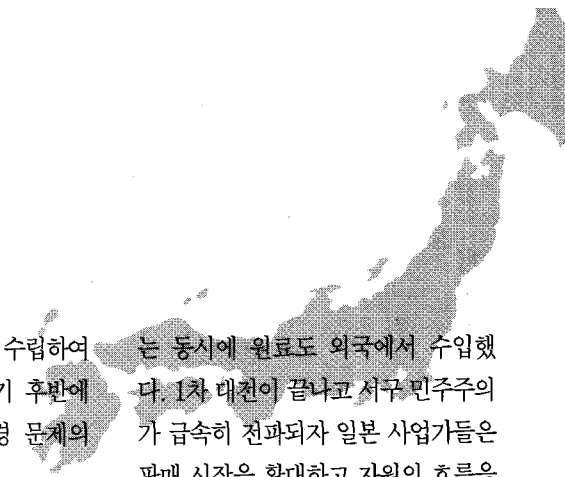
1894년 청일 전쟁의 발발로 일본은 종전의 방어적인 군사 전략을 버리고 군비 확장 태세로 돌아섰다. 국력이 강해지면서 서구에 대한 일본의 인식도 차츰 달라져가고 있었다. 서구 식민지주의에 대해서도 일본은 방어적인 자세를 버리고 그들의 영토 확장 정책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1895년에 몰락하던 중국에 승리하고 1905년에 대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겼다. 이것은 아시아 국가가 유럽대국을 이긴 첫번째 승리였다. 1895년에 타이완을, 1940년에는 한국을 합병한 국가력의 성공은 일본의 자만심을 부추겼으며 아시아를 점령하려는 국가적 야심을 더욱 확신시켰다. 이 야심은 팽창하는 산업국가에는 필수 요소였다.

비록 국내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2차 대전 이전의 일본 산업은 거의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다. 경제 성장과 자본 축적은 일본 국내에서 적절한 부의 분배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임금이 낮은 탓에 일본 국민들의 내수 구매력은 빈약했기 때문에 일본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판매를 외국 시장에 의존하

는 동시에 원료도 외국에서 수입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서구 민주주의가 급속히 전파되자 일본 사업가들은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자원의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식민지주의와 무력 정복을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신에 그들은 평화적 외교를 통해 광범위한 교역 관계 맺기를 원했다. 이 시기동안 일본에서 군국주의 세력이 잠시 약화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다이쇼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시기를 주도하던 정치적·정신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현상이 곧 나타났다. 군인들과 하위 공무원, 시골의 지주나 중하위 계층의 농민들은 외국 문물에 대한 적개심을 보였다. 메이지 시대에 교육받고 군국주의에 매우 심취한 이들은 자유주의를 허약하고 비굴한 풍조라 생각했으며, 과거 메이지 시대에 소수의 독재자들이 자행했던 강력하고 전체적인 규범과 영토 확장 정책에 항수를 느끼고 있었다. 군국주의자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 불길한 풍조는 자유 민주주의의 한 가닥 희망을 서서히 약화시켰다.

이러한 국내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1929년 대공황이 닥쳐왔다. 일본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는 급감했고, 통상을 통해 부와 특권을 지키는 데도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일본국민들은 공포 속에서 정복자의 진주를 기다렸다. 여전히 그들은 "참지 못할 일을 참고, 견디지 못할 일을 견뎌라"는 왕의 명령에만 의지하며 복종하고 있었다. 이후로 일본에는 실로 참고 견디기 힘든 환경 재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다. 미나마타, 이타이 이타이, 요가이치, 니이가타, 가네미 등 세계 환경사에 남을 만한 큰 사건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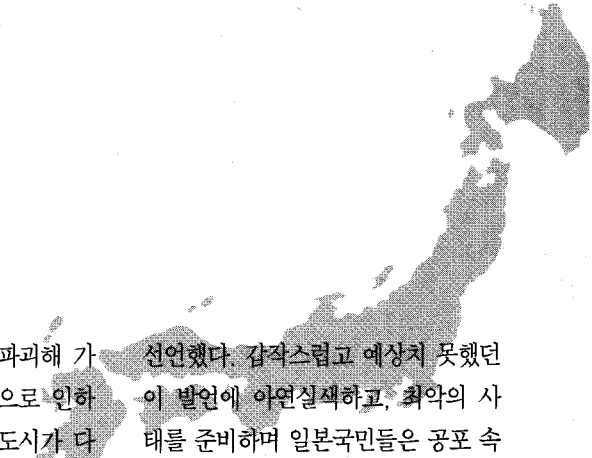
국제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은 무역 장벽을 높여 자국 경제를 지키려고 시도했다.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던 일본으로서는 엄격한 관세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평화적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 계획은 일본이 조절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돌발적 변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로써 명백해졌다.

일본의 늘어난 인구는 국내 자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1908년에는 호주가, 1924년에는 미국이 아시아인을 제외하는 이민금지법을 만들었다(면서). 이것은 늘어난 인구가 빠져나갈 길을 제한하였고, 동시에 일본인들의 자존심에도 타격을 주었다. 결국 1930년대 초에 일본은 식민지를 확대하여 영토와 자원,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것만이 높은 관세와 배타적 이민 정책에 대항하는 효과적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급진주의자들은 일본이 영토를 확장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지위를 잃고 가난해지기는 시간 문제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인구와 자원과 시장이라는 복합된 위기는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했고, 결국 이것은 1931년 9월에 일본 군대가 만주에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역사학자 카토 슈이치가 언급한 것과 같이 "미쳐 날뛰는 군국주의"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만주와 중국을 향한 침략은 시작되었다. 일본은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유럽에 전쟁이 발발하여 1940년에 프랑스가 함락되자 일본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침략을 감행했다. 1940년에 미국이 일본과의 경제 교역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태평양에서 대규모 전쟁의 위험성은 점점 커졌다.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기초 자원들과 원유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비축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미국 정부는 서서히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석유와 고철에 대해 수입 승인을 요구했고, 이내 고철, 강철, 철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1940년 12월에는 강철로 만들어진 물품의 수출도 금지시켰다. 그후 몇 개월 내 일본 수출 금지 품목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로 확대되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은 1941년 6월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가장 중요한 품목인 원유 수출이 중단된 것이다. 곧 일본의 경제 활동은 얼어붙다시피했다. 여섯 달 후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지상 및 대공 군사력 90%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켰다.

일본인들의 움직임은 재빨랐다. 1942년 4월말에는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네덜란드령 인도 동부지역, 미얀마까지 점령하였다. 일



본 군사정책 결정권자들은 일본과 중국 북부, 만주 지역을 산업 중심지로 한 '대동아 연합권'을 결성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찬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른 나라들은 자원을 공급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소비 시장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아시아 인을 위한 동아시아'를 건립하겠다는 구호를 선전했지만 식민지 주민에 대한 일본인들의 잔인무도한 행위를 보면 그 구호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진주만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미국의 해군과 공군은 예상보다 빨리 재정비되었고, 1942년 여름에 미군은 일본의 진격을 중단시켰고 오히려 공격을 감행하였다. 1944년에 미국 전투기들이 일본의 도시에 산발적인 공격을 가하여

국가 산업 기반을 서서히 파괴해 가고 있었다. 이듬해에 폭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 지역과 도시가 파괴된 일본은 전쟁에서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최선을 다하고 최대의 희생을 감수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구호를 계속 믿고 있었다. 이 강력한 구호는 수백 년 간 지속되어온 전통에 힘입어 많은 국민들이 개인은 국가에 봉사하고 왕실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으로 믿게 만들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3월 후 나가사키에서도 이 엄청난 일이 다시 벌어졌다. 군국주의자들의 목숨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로히토 일본 국왕은 전례 없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라디오에서 일본의 완전한 항복을

선언했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했던 이 발언에 아연실색하고,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며 일본국민들은 공포 속에서 정복자의 진주를 기다렸다. 여전히 그들은 "참지 못할 일을 참고, 견디지 못할 일을 견뎌라"는 왕의 명령에만 의지하며 복종하고 있었다. 이후로 일본에는 실로 참고 견디기 힘든 환경 재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다. 미나마타, 이타이 이타이, 요가이치, 니이가타, 가네미 등 세계 환경사에 남을 만한 큰 사건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 일간 '환경관리인' 유가지로 전환

본 연합회는 경제난의 여파로 인한 광고주의 지원 부족, 종이값 및 인건비 상승 등 기증되는 재정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환경관리인' 지를 유가지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환경관리인 편집팀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수렴, 신속·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 뵈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